

# 한 폭의 그림같은 와이너리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 <59> 美 나파밸리 '파 니엔테'

아름다운 동화 속 같은 와이너리에 서 그림같은 와인을 마신다. 과장이 아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와이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화창한 햇살도 덩으로 느껴질 정도다.

오늘 칼럼의 주인공은 와인이 아니라 와이너리다. 나파밸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와이너리로 손꼽히는 '파 니엔테'다.

파 니엔테는 지난 1885년 골드러시로 캘리포니아에 온 존 벤슨과 미국의 유명한 인상파 화가 윈슬로우 호머가 설립했다. 오크빌 서쪽 언덕에 지어진 파 니엔테 와이너리는 와인을 양조할 때 중력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1919년 금주령으로 황폐화됐던 와이너리를 재건한 것은 1979년, 지금의 주인인 길 니켈이다. 3년에 걸쳐 아름다운 과원과 시설을 되살린 와이너리는 그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문화 유적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름은 와이너리를 정비하던 중 건물 전면 돌에서 발견된 문구 '돌체 파 니엔테(Dolce Far Niente)'에서 유래했다. 라틴어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라는 뜻이다.

파 니엔테 와이너리는 감탄을 자아내는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조경업을 했던 집안답게 길 니켈은 건물을 재건한 직후인 1982년부터 바로 정원 꾸미기 정성을 쏟았다. 매년 봄마다 피는 수천 송이의 철쭉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규모다. 꽃이 피면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고속도로에서도 보일 정도라고 한다.

와인 동굴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는 약 2500개의 오크통이 동굴 안에 저장되어 있다. 일정한 온도에 자연숙도는 와인 숙성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지만 여기에서도 여러 번의 테이스팅을 거쳐 품질이 좋은 것만 와인으로 내놓고 나머지는 벌크 와인으로 팔아 버린다. 최고 중의 최고만 파 니엔테의 이름을 달고 나올 수 있는 셈이다.

파 니엔테는 와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감인 '아무 근심, 걱정 없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



파 니엔테 와이너리 건물 전경(위)과 내부 모습.

는' 와인 스타일로도 그대로 구현됐다. 과한 간섭보다는 아무것도 안하니 오히려 순수한 최고의 맛이 나오더라

기다. '파 니엔테 샴페네이 2018'은 잘 익어 즙이 풍부한 배를 비롯한 열대과일 느낌은 물론 입안에서는 풍만하면서도 둥글게 모아졌다. 단단하면서도 잘 짜여진 구조로 균형감이 뛰어나다.

'파 니엔테 카버네 소비뇽 2017'은 프랑스 보르도풍 블렌드 와인이다. 카버네 소비뇽을 85~90%까지 주로 쓰지만 멀랏과 카버네프랑, 뽀티베르도를 섞어 정교한 맛을 낸다.

'파 니엔테 돌체 2012'는 디저트 와인이다. 귀부 곰팡이에 의해 건포도처럼 말라버린 포도로 만든다. 농축된 품미와 광채 나는 황금색이 인상적이다. 달콤하게 말린 과일향과 꿀, 구수한 오크느낌이 어우러진다.

참고로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와이너리지만 유아나 어린이를 포함해 21세 미만은 아예 입장이 안된다. 나파밸리의 와이너리들이 대부분 시음장 입장만 제한하는 것과 달리 파 니엔테는 주차장을 포함해 경내 어느 곳도 허락되지 않고 즉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아이를 떼어놓는 이런저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꼭 가볼만한 곳이다. 주인장의 취미인 슈퍼카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smahnl@



자료 협조=CELLAR



(왼쪽부터)파 니엔테 샴페네이 2018, 앙 루트 피노누아 2017, 파 니엔테 카버네 소비뇽 2017, 파 니엔테 까브 셀렉션 카버네 소비뇽 2015, 파 니엔테 돌체 2012 시음잔. /안상미 기자



머니브레인이 개발한 AI 가상인간이 등장해 사람 목소리로 뉴스를 읽어주는 AI 앵커. /머니브레인



네온의 모습. 다양한 인종과 직업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구현했다. /구서윤 기자

## 대통령·앵커·승무원·상담원도 모두 AI

# 수만가지 표정... 사람인 줄

### AI 뉴스

**삼성전자** 인공지능 '네온' 공개  
시비서 넘어 문제해결 능력 갖춰

**솔트룩스** 트럼프 모습 AI인간 선배  
가상상담원 '샌디'는 이미 상용화

**머니브레인** 뉴스 읽는 'AI 앵커'  
대화형 학습 '스픽나우' 선보여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대통령, 앵커, 승무원, 상담원 등 가상의 사람 모습을 한 채 실제 사람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상대방의 감정을 분석하거나 사람처럼 다양한 표정과 제스처를 취하는 '가상인간' 개발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실제 사람처럼 느낄 수 있는 인공지능 '네온'을 공개했으며, 솔트룩스는 트럼프 대통령 등 모습의 AI 가상인간 기술을 최근 선보였다. 이에 앞서 머니브레인은 가상의 인간이 뉴스를 보도하는 'AI 앵커'를 개발해 최근 인포스타데일리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AI 앵커가 상용화돼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 ◆AI 가상인간 어디까지 왔나

삼성전자는 생김새, 몸짓 등이 사람과 흡사한 인공지능 '네온'을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네온은 수백만 가지 표정을 지을 수 있으며, 다양한 외국어도 구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네온이 AI 비서를 넘어선 친구로,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췄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 인간은 승무원, 일본인, 아나운서, 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표현하고, 성별, 인종까지 다양하다. 프로그



솔트룩스가 CES에서 선보인 CES에서 선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캐릭터화 한 AI 가상인간. /솔트룩스

램에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그대로 사람처럼 말하고, 눈썹을 위로 움직인다던가 하는 다양한 포즈도 설정할 수 있다. 아직은 프로토타입 형태이지만 요가·스페인어 선생님 등으로 다양하게 상용화가 가능하다. 또 답러닝 기술을 통해 향후 더 자연스러운 대답과 표정이 가능해진다.

솔트룩스는 하이퍼센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AI 가상인간을 공동 개발해 최근 기술 시연에 적극 나서고 있다. CES에서 선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캐릭터화한 AI 가상인간은 사람처럼 질문과 답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트위터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와 같은 언어, 음성, 시각 지능을 제공한다.

또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만 AI 캐릭터가 등장해 사람과 같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가상상담원 '샌디'도 개발했다. 지난달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솔트룩스를 방문했을 때 샌디 시연행사도 진행했다. 샌디가 키오스크 등에 들어가면 AI가 자연스러운 사람 음성으로 1차 상담을 해주고, 전문 상담은 상담원과 연결해주는 데 상담원

의 말을 따라하고 제스처까지 그대로 표현해준다.

솔트룩스 관계자는 "이미 가상상담원이 '콜봇'이라는 개념으로 NH농협은행 등에서 상용화돼 생활 속에서 쓰이고 있다"며 "이번에 선보인 가상인간 서비스는 5G 서비스와 연계돼 쇼핑물, 기업 안내데스크, 관광안내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AI 앵커의 뉴스 보도, 국내외 본격화  
머니브레인은 가상인간이 등장해 사람 목소리로 뉴스를 읽어주는 AI 앵커를 개발하고, 지난 12월 말부터 인포스타데일리에 뉴스를 시작했다.

AI가 뉴스 앵커 영상을 학습해 실제 앵커와 똑같은 말투, 억양 등 목소리와 얼굴, 표정, 움직임까지 똑같이 따라한다. 이를 위해 피부 합성과 얼굴 특징을 추출하고 감정 표현까지 가능한 AI 기술을 적용했으며, 영상과 음성 합성 기술을 적용했다. 또 답러닝 훈련을 통해 사람과 가까운 AI 영상을 제작해준다.

인포스타데일리는 김현욱 아나운서를 얼굴 모델로 취재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앵커가 이를 읽어주는 '경제 백브리핑'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머니브레인은 또 AI와 대화하며 학습할 수 있는 '스픽나우'도 선보였다. 스마트폰에서 가상 인간 캐릭터의 AI가 다양한 학습 시나리오를 대화형으로 제공하며, 레벨 평가와 오답노트도 분석해준다.

AI 가상인간이 등장한 AI 앵커의 뉴스 서비스는 국내보다 먼저 중국, 일본에서 도입됐다.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해 3월 AI 앵커를 활용한 뉴스를 시작했으며, 음성은 물론 뉴스를 전할 때 고개를 움직이거나 눈도 깜빡이기도 해 사람의 표정, 몸짓 등을 따라한다.

/세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 AI·핀테크 등 혁신업만 규제 대못 뽑는다

### 기재부, 5대영역 10대분야 확정

이번주 '10대 규제개선 TF' 출범  
6월말까지 분야별 방안 마련·발표

정부가 신산업이나 기존 산업에 뿌리 깊게 박힌 '규제 대못'을 정조준했다. 그간 수차례 추진했던 정부의 규제개선 시도에도 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

근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이상 신산업) ▲의료신기술 ▲헬스케어(이상 바이오헬스) ▲핀테크 ▲기술창업(이상 공통 산업) ▲산업단지 ▲자원순환(이상 제조 혁신) ▲관광 ▲전자상거래·물류(이상 서비스산업) 등 5대 영역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신산업·신기술뿐 아니라 제조 혁신

과 같은 기존 산업의 애로 사항도 고려해 선정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함께 기존 산업의 성공적인 규제 혁신까지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투자유치·수출확대·내수활성화 등 국민 체감도, 성과달성 기간, 추진수단, 민간의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주요 산업에 드리워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한용수 기자 hys@